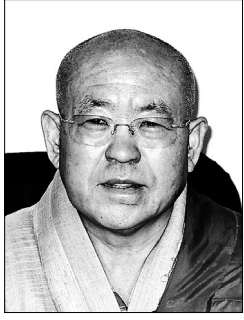


#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사퇴

3월 13일 사표 수리... 토지 매입 의혹 책임 통감한 듯

신임 총무원장 선출 전까지  
총무부장 대행 체제로 운영



토지매입 의혹과 관련해 책임론이 대두된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사진)이 사임했다. 종정 도용 스님에게 제출한 총무원장 도정 스님의 사표는 3월 13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3월 14일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종단의 공식 입장이 나올때까지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원장 스님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맞으며, 새 총무원장 선출전까지 총무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천태종 집행부의 한 스님에 따르면 “도정 스님은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모신 도로로부터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 접수된 상태라 이에 대해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최근 탄핵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종도와 종단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용퇴를 결심하신 것 같다”고 신중한 어조로 전했다.

실제로 도정 스님은 2004년 울산 정광사 주지로 있을 당시 사찰 공공도에 땅을 매입했으며, 다시 신도에게 이 땅을 되팔면서 받은 대금을 착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천태종의 또다른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종단의 행정 수반이 사적으로 사유재산을 취득한 것은 책임져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종단 내부에서는 총무원장 스님이 사퇴할 것이라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 천태종 제 16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도정 스님은 1년 3개월여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돼 종단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임기전에 총무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라는 점에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기전 사퇴는 2006년 총무원장 윤덕 스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취임 이후 26년간 집권한 윤덕 스님은 종단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물러났다.

정산 스님이 바통을 이어 받아 14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15대 총무원장까지 재임하며 순항하는 듯 했으나 잔여 임기 2년 8개월을 앞두고 2011년 8월 총무원장에서 물러나 잔여 임기동안 총무부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됐다.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역시 속내는 내부 갈등이 원인이었다.

한편 도정 스님의 사퇴로 후임 총무원장 선출은 이제 종정 도용 스님에게로 공이 넘어갔다. 종헌중범에 따르면 종정 스님이 추천한 총무원장 후보는 종의회 동의를 거쳐 다시 종정 스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태종은 총무원장 유고시 총무부장이 임시로 권한을 위임받기로 돼있어 현 총무부장인 월도 스님 직무대행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종립대학 발전 ‘네이밍 기부’가 이끈다

중앙도서관 IC ZONE 개소... 스님 이름 딴 세미나실 눈길

종립 동국대에 불자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국대 단위시설인 중앙도서관이 진행하는 ‘네이밍 기부’가 화제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3월 3일 중앙도서관 3층에 ‘IC ZONE’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중앙도서관은 정보공유공간의 부족으로 교내 협업 학습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IC ZONE에는 소규모 스터디들을 위한 스터디룸부터 창가 쪽에 위치한 1인 좌석, 대규모 학생들을 위한 컨퍼런스룸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마련됐다. 약 300평 규모에 스터디룸 4개소, 세미나실 10개소, 50명을 수용 가능한 컨퍼런스룸 1개소, 캐펄 5개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IC ZONE 개소 후 중앙도서관 페이스북의 접속건 수는 평소 2000여 건에서 개소 후 2만 여 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학생들은 “평소 스터디 때문에 신촌 등지에서 돈을 내고 사용했는데, 학교에 더욱 편하고 좋은 시설이 생겨 너무나 좋다”, “따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열람

실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등 도서관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이밍으로 기부, 재원 마련

‘IC ZONE’은 중앙도서관에서 ‘네이밍 기부’를 통한 확보한 도서관 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마련됐다. 2013년도 기부금액만 2억 7000만원에 달한다. IC ZONE 개소에 앞서서는 이 기금으로 협소한 1층 로비 등의 환경을 개선했다.

주요 기부자는 ‘자비의 전화’를 설립한 정덕 스님과 일진 스님, 묘주 스님, 진화 스님, 덕문 스님, 일운 스님, 상현 스님, 혜담 스님 등이 참여했다. 사찰로는 한마음선원도 참여했으며 이희구 동부약품 회장, 최석균 올레그룹 회장, 고영일 회장도 동참했다. 각각의 스터디룸과 세미나실은 덕문·상현·정덕·한마음선원 세미나실 등으로 이름 붙여졌다.

종립대학에서 단과대학이 아닌 단위부서·시설 차원의 이같은 기부금 모금은 이례적이다. 중앙도서관의 네이밍 프로그램은 계환 스님이 중앙도서관장으로 부임한 후 도서관 기금 모금을 위해 진행했다. 중앙도서관 측은 해외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북카페로 변한 중앙도서관 지하1층 로비(위쪽 사진)와 3층에 마련된 IC ZONE 중 덕문세미나실(불교중앙박물관장 덕문 스님 기부)

네이밍 기준을 마련했으며 향후 기금구입 도서에 ‘Bookplate’를 부착해 도서기금 기부자를 표시하고, 도서 검색결과에 기부 내용을 표시하고, 내 기부금이 어떤 도서 구입에 사용됐는지도 표시하기로 했다.

계환 스님은 “타 대학처럼 거액을 한 번에 쾌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심심일만 원력이 모이고 있다”며 “후학들을 위한 환경개선과 도서구입에 쓰여진

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흔쾌히 귀중한 정재를 내어 주셨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도서관은 대학이 희망을 키워가며 사회공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이용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간, 환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에도 스님 이름 딴 세미나실

이러한 ‘네이밍 기부’는 동국대 차원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前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지난해 동국대에 3억 원,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이 1억 원을 기부하며 동국대는 감사의 표시로 혜자 스님의 은사인 청담 스님의 이름을 딴 세미나실과 강의실을 개소하기로 했다. 총 3억 원 이상을 동국대에 기부한 학명 스님의 경우 이미 학명세미나실이 마련됐다.

동국대의 1996년부터 2012년까지 기부금은 연평균 109억 원으로 사립대 중 6위에 자리해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윤재용 동국대 전략홍보실장은 “2008년 2191명에서 지난해 6676명으로 기부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수요자 만족도 중심의 사업에서 네이밍 기부가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새 종책연대 ‘삼화도량’ 출범

11일 출범식... “비판·견제·감시 역할 최선”

원용회, 舊 무차회, 백상도량 등 조계종 종책모임의 연대인 3자연대가 ‘삼화도량’으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다. 이들 모임의 통합은 ‘강한 야당’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삼화도량(회장 영담)은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비판과 견제라는 종책모임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삼화도량은 초대회장으로 영담 스님을 정후, 범등, 청화, 보선, 학담, 재연스님 등을 고문으로 각각 추대했다. 집행위원장은 장적 스님, 대변인은 장명스님과 해림스님이, 산하 종책연구소인 삼화연구소장은 법인 스님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회장으로 추진된 영담 스님은 미리 준비한 원고 대신 즉석에서 인사말을 발표하고 강한 야당으로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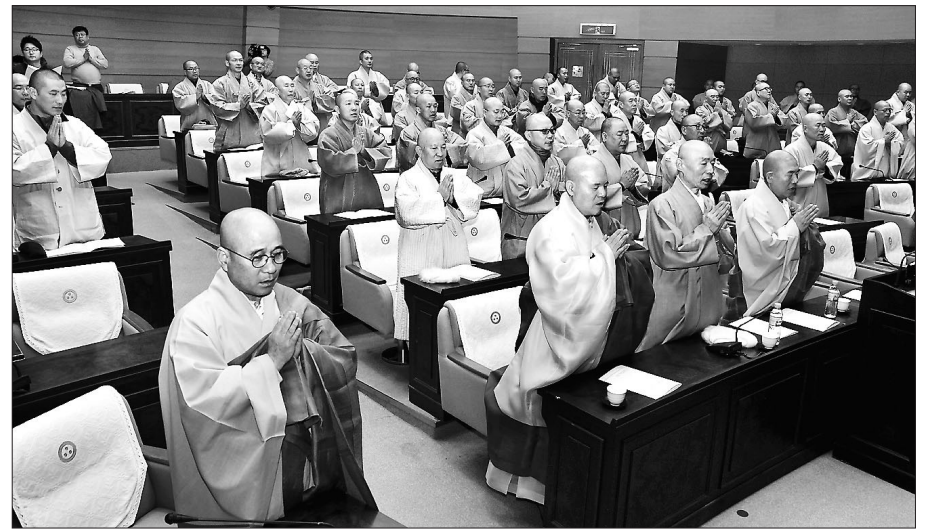
영담 스님은 “눈 앞에 이익을 좇기 위해 명분을 잃고 살지 않겠다. 종도들에게 종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

이라며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견제로서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문 청화 스님은 삼화도량이 견제와 비판, 감시의 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화 스님은 “집행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그 힘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면서 “종책을 타당성과 적절성을 냉철히 분석해 비판하고 종단의 비리, 부정, 비법, 탈법을 감시해야 건강한 종단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구성원 하나 하나는 예리한 ‘가시’가 되어 상대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가시’는 명분과 대의에 맞게 써야 그 가치가 드러나고 종도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이 점을 유념해 비판과 견제, 감시의 가시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출범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종단 내외로 경험 이 풍부한 역량있는 스님들이기에 주요한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비판과 견제라는 종책모임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종단적 과제의 완만한 추진을 위해 항상 소통할 것”이라며 “건강한 조건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삼화도량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모임들의 특성은 유지하되 공의를 모아야 할 종책 제안이나 입법 활동은 삼일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연합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무분별한 비판으로 연합체 내 의견이 흘러가지 않도록 삼화연구소를 개원해 대응불교를 시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삼화연구소는 향후 연구 종책 과제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중무행정 △한국불교의 수행법 대안 마련 △서울 및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 △총무원장 권한 축소와 역할 조정 등을 제시했다.

연구소장 법인 스님은 “삼화연구소는 종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적 담론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교구 분할에 대한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 불교 조계종

## 계율청정종단

---

**■ 종 정**  
총무원장: 혜인 사서실장: 대산

**■ 총무원**  
부원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해만  
교무부장: 해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대산  
편집기: 이기영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 이근진 사회국장: 법산  
유현석

이사: 해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원로원: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총무원장: 정산  
서울남부총무원장: 보덕  
경기총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총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총무원장: 해인  
인천총무원장: 해원  
강원총무원장: 광덕  
충남총무원장: 혜덕

**■ 총림**  
서울총림: 혜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대학원**  
학장: 혜일 부학장: 일봉  
교수: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교: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정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학원**  
원장: 혜인  
교수: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해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은,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승,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목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오연화 부총장: 정오, 남산  
한국총장: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손영진  
학생처장: 손영진 조교: 심미, 유유, 손정  
운영이사: 법정, 해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3445-7375-6  
일간종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원: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